

Q 검색

홈 > 기획 > 기획특집 > 상월결사

#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노덕현 기자 | 입력 2021.10.16 12:35 수정 2021.10.16 16:05 댓글 0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17일차 호국본찰 표충사 도착

빗속에 새벽길 걸어 재약산 진입  
호국성사(聖師) 헌다, 발원문 낭독  
이주민·불자 등 영접, 꽃·차 공양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등이 표충사당에서 호국성사에 헌다하고 있다.

호국성지에서 국난극복에 대한 새로운 서원이 세워졌다.

상월결사(회주 자승)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 16일 17일차 순례를 진행, 호국본찰 표충사에 도착했다. 15일 숙영지인 밀양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밀양시 산외면, 단장면을 거쳐 표충사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순례를 진행했다.

## 최신뉴스

[영상] 천리순례 15일차, 상월결사-조계종 토크콘서트 개최



[영상]상월결사 삼보순례단, 경북서 경남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사노위, 무연고사랑자 추모위령제 봉행



부산 팔관회, '호국불교와 코로나19 극복'



선학원미래포럼, 법진 이사장 재선출애 청

## 인기뉴스

- 1 最古 금속활자에 묻힌 '직지' 성보 가치
- 2 '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 3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자"
- 4 상월결사, 호국성지서 '국난극복' 외치다



폭우 속에서 순례단이 새벽예불을 올리고 있다.

16일 새벽 1시경부터 순례단에는 불청객인 비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12일과 13일, 우중행선을 진행했던 순례단은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순례 도중 수많은 역경을 극복한 순례단 앞에서 이제 비는 더 이상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순례단은 새벽 3시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도 새벽예불을 하며 의지를 다졌다.



새벽순례는 강변길로 차량이 지나지 않았지만 비로 인한 미끄러움과 어두움으로 위험했다.

일일참가자로 참여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 국장단,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원 부부, 민병덕 동국대 이사, 봉은사 거사림회 등도 저마다 우의를 입고 순례단의 뒤에서 묵언정진했다.

밀양시를 벗어난 순례단은 경남 유일의 종립 중학교인 홍제중학교에 도착했다. 홍제중학교에서는 불자 직원들이 나와 순례단을 맞이했다. 비와 함께 순례단을 덮친 추위 속에서 실내체육관에서 잠깐의 휴식과 아침공양은 순례단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 5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studio GONG



[영상] 상월결사-조계종 포교원 토크콘서트

###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불교중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



홍제중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휴식지에서 회주 자승 스님이 발을 치료받고 있다.

김용 홍제중 교장은 “원래는 노천에서 대중공양을 하시기로 했는데, 비도 오고 지켜볼 수 없었다”며 “시골 학교들은 학생들이 거의 없어 존폐 위기에 있는데, 스님들이 오셔서 학생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다시 발걸음을 재촉한 순례단에는 불자들의 환대가 이어졌다. 단장면에 들어선 순례단에게 밀양주민들이 따뜻한 보이차 공양을 올렸다. 행선 중 취식은 금지됐지만, 새벽부터 나와 준비한 불자의 정성에 스님들은 공양물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단장면에서는 신명사 신도인 옥연화 보살이 보이차를 순례단에 공양올렸다. 순례 중 취식은 금지되지만 신도들의 정성스런 공양에 스님들은 거절하지 못했다.

비바람을 뚫고 도착한 세 번째 휴식지인 여울목에서는 회주 자승 스님의 인연으로 인한 이주민 불자들의 환영행사가 펼쳐졌다.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재직 당시 자비나눔을 시작, 다문화 어울림마당에도 매년 참가할 정도로 국내 이주민 불자와 다문화 가정 돕기에 앞장 선 바 있다. 이번 순례에 참여한 진오 스님과의 인연이 더해져 전국의 이주민들이 각자의 국기를 들고, 순례단을 열렬히 환영했다.



장마터널을 지나 표충사가 있는 재악산 일대로 접어드는 순례단의 모습





싼스리 스님은 “한국사회에서 소외받는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은덕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국 이주민들이 오늘 모이게 됐다”며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안녕과 불교 중흥을 위한 순례에 마음으로 계속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재약산 자락에 들어서자 빗줄기는 거짓말처럼 줄어들기 시작했다. 비바람과 추위, 도로에서의 위험을 뚫고 호국성지에 도착한 순례단을 하늘도 반기는 듯했다.



표충사 사하 시전마을에서 표충사로 걸어들어오고 있는 순례단의 모습

표충사에 당도한 순례단은 표충사와 불교음악원에서 준비한 음성공양을 받으며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의 영정을 모신 표충사(表忠祠)에 헌다하고 대광전 앞에서 17일차 순례를 회향했다. 또 조계종 호계원장 보광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前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마하이주민협의회 다문화가족과 지도법사 스님 등이 순례단을 영접했다.



표충사 입구에는 주지 진각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영접에 나섰다.

이날 진오 스님의 발원을 통해 순례단은 순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정진해 갈 것을 다짐했다.

“그 무엇이 순례단을 표충사에 이르게 했습니까. 국난극복과 불교중흥 만이 시대의 호국불교 면면을 되살리는 길이기 때문입  
니다. 저희도 말이 아닌 몸으로, 입이 아닌 두발로 이 시대의 호국불교를 펼쳐겠습니다. 보다 어려운 이들과 불교 근본 가치를  
살리기 위한 끊임없는 순례에 지속 나서겠습니다.”



마하이주민협회 등이 준비한 꽃다발을 목에걸 회주 지승 스님과 순례단. 마주협 이주민 불자들은 자신의 국기를 흔들며 순례단을 환영했다.

새로운 불교를 위한 대장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이제 사자평을 넘으면 불보종찰 통도사다.



불자들과 주민들의 뜻밖의 열렬한 환대에 회주 자승 스님도 힘든 순례지만 미소지었다.









 노덕현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승스님](#)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포교콘서트]2 대중 소통의장 "불교 호감 높이자"  
 천리순례단 경북서 경남으로... 지역 주민 응원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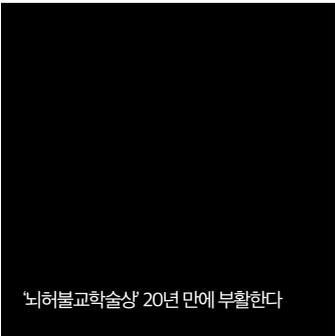
[포교콘서트] 3. "역량 결집, 새 포교 방안 마련"  
 [포교콘서트]1.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광명사 52년, '새마음불교운동' 정법도량으로 성장

[영상] 상월결사 우중행선, 걸음마다 환희만이  
 우중행선(雨中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치 되새기다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증생과 호흡하다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증흥 기대 교차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볍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국민에 치유·희망 전한 화엄문화축제 성료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불교증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 이시각 추천뉴스

- '뇌허불교학술상' 20년 만에 부활한다
- 불교증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 삼보순례 자자, 참회와 증흥 기대 교차
-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 호국성사 앞에 펼쳐진 호국음악 한마당
- 대행사상, 인문사회·자연과학으로 논하다
- 기후위기 극복 불교계 움직임 활발



###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D
by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가을 산사서 생명나눔 선율의 향연이 펼쳐지다

불교증흥 서막, 삼보순례 대회향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7년'동안 갱아라? '1억대출' 신청자 몰렸다.

신심과 원력으로 재약산 사자평 넘다

< >

###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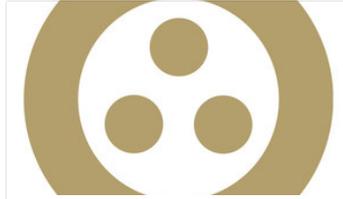
### 주요기사



광명사, 불교 스피치로 포교 강조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성파 스님, "종정 후보 추대 대중의 뜻에 따라"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 현대불교

UPDATED. 2021-10-18 19:27 (월)

### ☎ 제보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구독신청
-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